

# 해외의약뉴스

아세트아미노펜의 위험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저자: Troy Brown, RN

## 개요

아세트아미노펜은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과도한 사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키워드

acetaminophen, paracetamol, risk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으로 알려진 파라세타몰(paracetamol)은 새로운 체계적 문헌 고찰에 의하면 특히, 표준 복용량보다 높게 복용했을 때 원래 생각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와 한 외부전문가는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있어, 자연적 관찰치이고 교란인자가 통제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표준 진통제 복용량 상단의 높은 파라세타몰 독성수치"가 제시된 부정적 연구결과가 담긴 복용량 반응 곡선을 주목하였다.

영국 남런던 모즐리병원 정신건강과 Emmert Roberts와 동료들은 현재 그들의 발견을 담은 논문을 온라인 BMJ 3월 1일판에 게재했다. "파라세타몰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진통제이다. 파라세타몰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진통제 사다리 첫 번째 단계에서 권하는 다수의 급성 및 만성 통증상태에서의 다양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첫단계 약물요법이다."고 연구자는 밝혔다.

연구자들은 2013년 5월 1일부터 한정된 기간 동안 Medline과 Embase의 조사를 통해 파라세타몰의 부작용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했다. 이 연구들은 파라세타몰의 표준 진통제 복용량을 복용한 일반 인구 중 성인들의 사망률, 심혈관계 질환, 위장 질환 또는 신장의 부작용이 보고된 영문으로 작성된 관찰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888개의 연구 중 8개의 연구를 추출하였는데 모두 코호트연구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질을 추천평가, 개발 및 추천 등급에 따라 사정하였고 결과통계의 요약을 중심으로 집계하였다.

두 개의 연구가 파라세타몰을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을 비교하였는데 모두 사망 위험이 증가하였다. 한 연구에서 파라세타몰을 복용한 이들의 표준화된 사망비는 1.9(95% 신뢰수준, 1.88-1.94)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1.28(95% 신뢰수준, 1.26-1.30)의 사망비가 나왔고 상대적 사망률이 0.95(95% 신뢰수준, 0.92-0.98)의 최저 수치부터 1.63(95% 신뢰수준, 1.58-1.68)의 최고 수치까지 비복용자와 비교해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를 보였다.

4가지 연구들 중 모든 경우에서 복용 반응으로 심혈관계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한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위험률이 최저 1.19(95% 신뢰수준, 0.81-1.75)부터 최고 1.68(95% 신뢰수준, 1.10-2.57)까지 증가한

결과를 보고했다. 한 연구에서는 복용 반응으로 위장관계 이상사례 또는 출혈이 최저 1.11( 95% 신뢰수준, 1.04-1.18)부터 최고 1.49(95% 신뢰수준, 1.34-1.66)까지 증가한 결과를 보고했다. 4개의 연구에서 신장기능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3가지는 양반응 관계가, 1가지는 30% 이상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는 정도 이상의 위험비가 1.40(95% 신뢰수준, 0.79-2.48)부터 2.19(95% 신뢰수준, 1.4-3.43)까지 위험비(risk ratio)가 증가되었다.

## 주의점

연구자인 리드대학 근골격 내과 Philip Conaghan교수(PhD, MBBS, 이하 직책 생략)는 “이 문헌고찰은 장기간 관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잠재적인 편향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최적의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연구를 Medscape Medical News는 보도했다. “예를 들면, 일반의약품 사용의 측정이 불가능한 하나의 교란인자로서 중요한 부작용이 있는 이부프로펜(ibuprofen)이 기록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예이다. 물론 임상시험으로부터 장기간 데이터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데이터는 통상 오랜 세월 유지되지 않고, 그래서 장기간 탐구한 잠재적 약의 부작용에 관한 어느 정도 부족한 데이터에 의존했다.”고 Conaghan박사는 밝혔다.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미생물학/면역학 명예교수인 MD Norton M. Hadler는 “데이터의 유연성 때문에 이 연구가 재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험도의 종류는 의미있게 도출하기 매우 어렵다.”고 Medscape Medical News는 보도했다.

## 임상시험의 결과

Hadler박사는 임상시험의 첫 번째 일은 이와 같은 연구를 해석할 때 시험적 방법론에 근접하고, 단순한 초록에 의존하면 안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더욱이 임상시험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인지 아닌지 그들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Hadler박사는 밝혔다. 하지만 일반약은 보통 안전하고, 첫 통증 보조 비약물 치료로서 임상의와 환자에게 타당하다.

Conaghan박사는 동의했다. “첫째로, 임상시험은 파라세타몰이 환자들에게 필요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파라세타몰은 [비스테로이드 항소염제] 또는 오피오이드(opioids)처럼 다른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로, 임상시험은 일반약과 진통제를 완전히 복용하는 것(많은 비스테로이드 항소염제 기록)까지 포함하여 환자들에게 그들의 진통제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임상시험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파라세타몰을 고복용하는 것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울 수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는 장기간 사용하는 파라세타몰은 근골격통 때문일 것으로 짐작한다. 노년층, 요통이 증가하고 골관절이 있으며 아스피린 및 이부프로펜으로 견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통증 조절을 위한 큰 필요성이 있다.”고 Conaghan박사는 결론을 내렸다.

Conaghan박사는 진통제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자주 재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며칠간 복용을 멈추고 통증이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은 만약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관절 통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필요하다면 모든 무릎 통증 개선을 위한 육체적 활동 증가에 따른 근육 강화 운동, 체중 감소이다. 이러한 일이 바빠서 어렵더라도, 결국 그것들은 약보다는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Conaghan박사는 설명했다.

“우리들은 특정 상태에서 편익-위험 비율을 고려해야만 하고, 파라세타몰의 편익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 Lancet 연구에서 파라세타몰이 급성 하부 요통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지만, 파라세타몰의 안전성은 연구 4주간에 양호했다.”고 Conaghan박사는 밝혔다.

#### ■ 원문정보 ■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840771>